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壹個月先金壹圓 … (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壹行壹圓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社說

所謂『副島伯의言論』問題(三)

統治群의必然的苦悶 況餘下의朝鮮人大衆

一

敵을그의最後的인背水의陣地로부터 河川이交流하는長谷에外지驅出하고 그들로麻醉또는窒息케하는것은 理智와및科學의威力을並用하는 現代戰術의最上乘인者일것이다 問題의『副島伯의言論』 그의縷縷叙述한朝鮮自治論의眞意가 朝鮮人大衆의步調의攪亂 및그麻醉或은窒息을爲한策戰인것은 吾人의昨述한바에依하야 자못餘蘊이업시剔抉되엿슬것이다 그러나『併合以來帝國의大方針인內地延長主義를버리고 朝鮮人自治를云爲하는것은 所謂『重大한惡影響』을『朝鮮의統治』에 밋치는것이라하야『驚駭』와『憤慨』과를바덧다는 彼等『熱烈한反對』者의憤慨는 곳무엇을意味함인가? 그리고『時期尙早論은不可』라고『三十年乃至五十年後일지라도 此와如한口實下에自治란施行할日이無할것』을嗟嘆한朝鮮人特殊部類의그것은 또무엇을意味함인가? 이는吾人이가장周密한思慮로써 滿天下有心한朝鮮人과함께그의嚴正한檢討를要하는바이다

二

『帝國의大方針인 內地延長主義』는『日韓併合과同時에確定된것으로서 一定不變의國策』이오『一視同仁의大精神에依하야 內鮮人의融和 日鮮의一家라는大理想에向하야 나아가는 悠久不變의方針』이라는것이彼等憂國慨世를職業으로하는者의『副島伯의言論』에『驚駭』한根本理由이다 그리고그는곳『暴論』이오또『帝國에對한反逆者』인모양이다 그리고『帝國에對한反逆者』가 되는것은 그理由가那邊에잇는것일가? 그는곳그의所謂『政治的同化主義』의 方法論的標語인『內地延長主義』의內幕이넘우나無理또는跋扈함을因함일뿐이다 卽彼等『天降』한『天孫族』의獨特한優越感의虛妄한信念에因한 朝鮮二千三百萬大衆의生物的併呑을爲함이다 이를爲하야는 그의强大한百萬의海陸軍과 苛酷한警察網의排鋪에依한 朝鮮人에對한徹底한抑壓및恐怖政治의永久한續行을合理化코저하는바이다 前述한組織的인驅力을背景으로서 그의巨大한資本力에依하야 京鄕各地朝鮮人의利權을搶奪또는獨占하야 그들의生活狀態으로決定的敗殘狀態下에永續케하고저하는바이다 그러나 어쩌다만이인이라?

三

記者日本의現政府黨인 憲政會는 朝鮮에一千萬人移民案을討議하엿섯다 이것이責任잇는政治家의選定한具體案이아님은勿論이다 그러나朝鮮人大衆으로滿洲또는西伯利亞의曠野에轉住케하고 一千萬의日本人으로朝鮮人의溫暖한鄕土에占住케하고저하는것은곳政治的同化를企圖하는『內地延長主義』者의 자못實現하야마지안는바이다 그 [illegible]

로 그의自然의方言인朝鮮語를禁遏하고 法定的『國語』인日本語本位의注入主義의『植民地敎育』을勵行하지아니하면아니되는理由가 여긔에잇는것이다 同時에師生間의溫和한家庭的團이絶滅되고 오즉冷酷한殺伐的인人種的戰慄이 업새업시全朝鮮人의棲息하는 內外各地의幼年들의몸에서繼出되지아니할수업는所以이다 그들은日本에잇서根絶을要할假想敵이나 또는凶行의犧牲者로서 兩立치못할特殊種族으로서 數十萬의넘는朝鮮人을對한다 만일또彷徨의一路를暗澹한異域의曠野로轉換한 滿洲의一境에잇서서도所謂『日支協定』의惡法의延長에因한險酷한處置는 곳不幸한脫出者로하야금 進退維谷畢竟은그들의橫暴한政令下에 俯伏하야一命을乞케하고저하는心事에서나옴이다이것들은곳彼等이『一定不變의國策』을 부르짓는『內地延長主義』그것의 徹底한强行을意味하는바이다 그러면『時期尙早論은 不可』라고 그에게抗論하는者는 곳무엇을意味함일가?

四

朝鮮人의特殊部類等構成하는中樞院의某參議에依하야 朝鮮自治의『時期尙早論은不可』함을抗論한것은當然한일이다 朝鮮日本人의稱이잇는國民協會또는그와同類의사람들이彼等『內地延長主義』를 不變의鐵則으로삼는 朝鮮統治群의一別働隊에 追隨하는것은 더욱爭論함을要치안는바이다 그러나彼等이오즉鮮極하야朝鮮人大衆을爲하야何等의解放策을講究함이업시 또는自然한 殉難的誠意도업시다만心血을傾注하고 論策을備嘗하는失意의鬪士들을祭物로서 장차趣移되려는時勢를利用하려는假面的偏會主義者로서 그의安價한榮幸을僥倖하려는 그의心理야말로 비록黃童白叟이나 또한모다看破하는바이다 그리고巧妙한假面下에時日을건되어가는 一部의次凶分子들이 또한暗裡에 時機漸熟을嘱來하며 어떤한 陰謀를企圖함도 또한必然한理勢이다 그러나彼等『文化的特質 民族的固有性』을論하되 結局은『精神的모히患者』라고附會하지아니할수업고 오히려또『帝國에對한反逆者』의定罪를避할수업스니 그는곳『無産階級化』하는 彼等의體內의『毒素』에對하야正當한解決을要할何等의見識과勇氣가업는統治群의苦悶을表證함이다 그리고 그의攪亂策의發動下에서 자못一致되지안는步調를가지는 朝鮮人大衆은 確實히 一大歷史的洗鍊下에잇는것이다(擱筆)

排日氣勢擡頭
日本干涉說로
上海와蘇州가尤甚

(東京電某處着電)=張作霖、郭松齡間의戰爭以來日本의滿洲出兵說과干涉說이中國에盛傳되여南方中國에는旣히排日的氣勢가濃厚하여저서上海의中國紙는最近盛히排日的言辭를揭載하며蘇州에서는十一月三十日中等學校以上의男女學生二千名이南京路事件半週年紀念會를開하고示威運動을行하야各處에서左와如한排日的演說을行하엿더라

一、日本은瑞典、英國을煽動하야中國의自主權에反對하엿다
一、日本과張作霖間의條約은張作霖失脚後는取消케할事
一、日本은張作霖의反對派對抗上滿洲出兵에對하야日貨排斥을行할事

그리고同地에서는通行中인日人에게對하야惡罵를加하는等人心이惡化되더라

郭軍의士氣不振
奉天軍의意外에得勝

郭松齡軍은通山錦西附近에亙한奉天軍의陣地에對하야第一線에約十五聯隊를配置하고三日以來攻擊을準備中이나奉天軍이現在地에서決戰得勝한結果 投降한郭軍의兵은二乃至三旅團에達하야郭軍의意氣는不振한터인데投降兵은郭松齡의宣傳에依하야馮玉祥軍이旣히熱河를經하야奉天軍의背後에迫한것으로信하더라

歐洲一帶에
合衆國建設을
社會主義者가畫策中

(나우엔『四日發』)歐洲의社會主義者는歐洲諸國의關稅統一에依하야歐洲合衆國을形成하랴하는中인데其方法으로는當히獨逸諸州가聯邦을組織한例에倣하려하며伯林의政界에서는巴里에開催될航空會議그것이此目的에到達하는第一階梯라고云한다더라

炭坑罷業繼續

(필나델퓌야『二日發』)罷業中의『펜실바니아』州無煙炭坑工夫는同州知事『핀쇼트』氏의提議를容認하엿스나炭坑主側은提案에應함을拒絶하얏슴으로罷業은依然繼續되기로되엿더라

印度紡績은復業

(봄베이二日發)印度의紡績工場主는綿布商品稅撤廢를豫想하고從前의賃銀率을恢復하기로하엿슴으로過去三月間에十五萬人의紡績勞働者의參加한同盟罷業은終息되엿더라

外交問題報告
四日의定例閣議

(東京電)四日의閣議는午前十時首相官邸에開催外相으로부터日露交涉도假調印을終하고近近正式調印하기로되엿다는것과對中問題인北京은只今平靜하여서治 … 外交調査委員會는十八日부터開催할터이라는데 … 國民軍과奉天軍과의動靜에對하야報告한바가잇섯더라

憲本折衷은
來廿日頃開始?

(東京電)憲政會는時局에對하야加藤總裁를爲始하야黨出身閣僚幹部의多數는될수잇는대로議會를解散치아니하고通過할意嚮임으로此方針으로써進行할氣機이다 그러면旣히憲政會는本黨에다리를노코常任委員長의濱口에對하야어너諒解에達할것가티傳하는者잇스나實際는何等折衷에行하지아니하엿다이것은憲政會가本黨內의情勢의定함을待하는것인데憲政派의解하는바에依하면本黨의合同非合同의兩派는感情이全혀隔離되야到底히融合하야議會에臨할希望이업슴으로結局分裂할밧게업다고하야若本黨이分裂되면此에對하야有利한條件으로다리를노라고하는데憲本兩派의折衷은來二十日頃부터開始되리라고豫想되더라

順天記者團創立
全南東部記者大會까지創立

全南順天郡各新聞記者는順天記者團을創立하기로從來準備하여오던바東亞時代本報三新聞記者가去三日午後四時頃에東亞順天支局에會合하야順天記者團을創立하엿는데臨時議長鄭淳悌氏司會下에宣言綱領과規則을通過하고左와如한決議를한後理事三人을投票選定하고午後六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

◇宣言(畧)

◇綱領
一、우리는言論權威의伸張發揮를期함
一、우리는不偏不黨하야民衆本位의報道를期함
一、우리는同職者間에互相協同하야步武의一致를期함

◇幹事
李榮珉 鄭淳悌 李昌洙

◇決議
一、言論의權威를撤底히伸張發揮할일
二、各地方에잇는記者와一層緊密한連絡을圖할일
三、各種運動에對하야는嚴正한批判과迅速한設置를期할일
四、地理上便宜에依하야爲先全南東部記者大會를發起하되其時日과場所는幹事에게一任할일
五、新聞講演會를開催하되一切를幹事에게一任할일
六、海龍面에서發生한日人中島作人의小作料、不納同盟事件과西面에서發生한金鏑弼이小作人欺瞞事件幷小作料不納同盟事件에對하야는十二月四日부터本團員四人을特派하야其眞相을摘發報道하되西面特派는李昌洙崔炳輝兩氏로海龍面特派는李榮珉鄭淳悌兩氏로할일
七、事務所는時代日報順天支局으로할일(順天)

새로組織된
仁川流星會

本月一日仁川에서는새로운色彩를띄우고李比道、秦宗燕、朴亭南、李周永氏外十二靑年의發起로朝鮮文學을硏究하기爲하야流星會를組織하엿다는데그會의綱領은아래와갓더라

◇綱領
一、本會는朝鮮文學(詩小說戲曲感想文、紀行文、童話、童謠小品)의主觀的各自任意硏究하는者로써組織함 任體育及技藝를奬勵할建設者로組織함
二、本會는民衆藝術을本位로하되더욱『푸로』文學의健全을圖謀함
三、本會는眞實한親睦과敎養을爲主하는同時積極的互相扶護를勉勵함
四、本會는個人充實을置重하되新時潮의要求하는實質的人物될을企待함
五、本會는一切事業進行에對하야具體的步調를共鳴함(仁川)

高原小作組合
緊急幹部會

高原小作組合에서는去三日本報高原支局內에서緊急幹部會를召集하고事務室移轉의件、東拓倉庫에委員派遣의件等三條件을討議하는中東拓倉庫에서無理橫暴하게小作料徵收는勿論이고昨年에東拓元山支店과圓滿한打協한斗量에對하야今年에도例前과가티不正하게말『斗』우에二三指를더부처濫徵함에對하야爲先委員三名을東拓倉庫에派遣監視하기로하고이에對하야對策講究로臨時總會를來八日에開催하기로하엿다더라(高原)

海州正內女校
建碑除幕式

海州正內女學校에서는몃五萬圓價格되는土地를寄付한劉淳益氏에게謝意를表코저二十餘尺되는石碑를創成하야十一月二十八日本校內에서建碑除幕式을擧行하얏는바來賓이百餘名으로大盛況裡에式을마치엇다더라(海州)

潭陽勞聯
緊急委員會

全南潭陽勞働者組合聯盟에서는去二日下午八時부터潭陽靑年會事務所內에同盟委員會를開催하고當面問題에對하야十一月二十六日米穀商組合總會當時에勞組員의代表者奇老春、鄭環仁、宋琢煥三氏가出席하야互相協議의趣旨로同賃金引上案을提議하엿도不拘하고米穀商組合에서너무나無理하게拒絶하얏슴으로此에對하야는不遠間各組合의總會를召集하야積極的으로對策을講究하자는決議와其他事項을決議後同十一時二十分에散會하엿다더라(潭陽)

◇決議
一、賃金問題에關한件
本聯盟에서決議의賃金引上問題는米穀商組合으로부터拒絶을함으로各組合의總會를召集하야對策을講究할것
一、全羅勞農聯盟에關한件
全南勞農運動의統一을圖키爲하야全羅勞農聯盟에加盟하되事의實行을目的으로하야全南的으로分立할號件을添付提出할것

錦山에畜産講話

全北錦山郡에在한錦山畜産組合에서는四千六百七十二人의組合員으로每年成績이良好한바今般畜産同業組合聯合會主催로本月六日下午六時錦山公立普通學校에서畜産講話會를開催하리라는데錦山畜産에對한寫眞도映寫하리라하며翌日은同郡秋富面에서開催하리라더라(錦山)

萬山東面所移轉

昨年부터問題가되야住民의輿論이紛紛하든萬山東面事務所는昔時萬山牧官이잇던南牧里나무漁港場으로또日本人과遊廓만키로有名한方魚津으로本日五日에移轉하엿다더라(萬山)

幼稚園을爲한
連鎖劇大盛況

咸南利原邑에서數月間興行中이든朝鮮新派連鎖劇革新團林容九一行은利原邑幼稚園의困境을보고一日間幼稚園을爲하야興行實費만除하고는幼稚園經費補充으로 …

兵營靑年會館
不遠間落成

慶南蔚山兵營에잇는兵營靑年會에서는今春부터有志靑年의活動으로會館建築에全力을費하야一般有志의同情과會員諸氏의誠意있는出捐으로五十餘坪의大建築을不日落成케되바會員은勿論이오一般人士들도喜悅을不勝한다는데이에特히注力한靑年은楊錫龍、劉昌植、吳義相諸氏라더라

江界에防疫會議

平北道警察部에서는防疫事務를打合키爲하야慈城厚昌、楚山、渭原、碧潼、昌城、朔州、義州、龍川各警察署長을江界에召集하고富永警察部長이來江하여二日間事務打合會議가잇섯다더라(江界)

坂本農場問題
解決은아즉杳然
小作代表와郡守의問答

全南寶城郡에잇는群山松本農場의所有土地에對하야小作料鑑定이너무無理하야小作人一同은郡守와警察署長에게調定의歎願하얏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小作人의事情이事實上抑鬱함을認定하는郡警察當局은그善後策에對하야直接交涉코저松本農場의本地主인坂本由藏氏를公式으로招請하야十一月二十七日寶城郡廳及福盛旅館에서郡守署長其他某某有力者가兩次會合하얏섯고다시小作會代表崔昌淳氏가小作人五十餘名과함께坂本地主를訪問하고여러가지問答이잇섯는데그의對答要領은小作料鑑定이잘못된것은果然事實이나此問題가地主된自己를떠나서即郡守와署長에게잇는故로圓滿히解決하야주기를郡守와署長에게一任하얏슨則 그리알라는意味로對答이模糊하고아모具體的解決이업시곳自動車로出發하얏슴으로當局의指導만苦待하던小作人들은何等의解決이無함을疑訝하야다시崔昌淳氏가郡守와署長을訪問하고左記問答이有하얏다는데本月五日다시該土地에對하야小作人會를開催하기로하얏다더라(寶城)

◇署長과問答
問、坂本地主와會合한結果가何如
答、小作料鑑定의失策은地主도認定하는바이며그解決策은今年鑑定額九百三十石을昨年小作料八百七十石에比하면約六十石이增加되얏는데今年農作이一割乃至二割이減收되얏슨즉그것을平均一割五步로假定하고地主와小作人이各各折半式損害를負擔하면昨年小作料에七步五里를減하야줄것이다
問、今年全收穫이昨年小作料에未達하는者는엇지할가
答、그것을事實上公認할時는折半式分配할것이다
問、明年小作變動이小作人憂慮의焦點인즉此는如何할가
答、絶對로無理한移動은防止하겟다

◇郡守와問答
問、阪本地主와會合한結果가如何
答、但只議論뿐이오具體的委任한일은업다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구리요보』

◇나는나의事業經營上關係로間或京城에를가는일이잇다去四日午前十時頃에도亦是不得已한用務가잇기때문에그곳을가게되엿섯다

◇마츰總督府에서約一二町을隔한南山町官舍村을지내려할際에엇던堂堂한二層집으로부터行色이보기실차안은中流生活以上으로推測할수잇는日本婦人이나오더니목소리를크게하야『구리요보』라는나로는生後初聞인奇語를通發한다

◇듯기에너머도奇怪하고또는그의意味를解得키어려워서나는暫間거름을멈으로動靜을살폇다 그리하자엇던村落夫와恰似한朝鮮中老人이『상투』가잇는그머리로用帽를着하고『엇개』에무엇을메이고서서『구리요보』라는奇聲에對하야『하이』하고應答한다 日本婦人은다시뭇기를『요보구리조소』라고한다然則中老人은『하이단단히조소』라고서로問答한다

◇이를目睹한나는비로소兩人의酬酌이『粟賣買의問答』인줄을解得하엿다 그러나이奇聲을解得한나로는무엇에比할수업는感想을가지게되엿다

◇『요보』와『왜놈』이러한用語가兩民族間에惡感을이르키는것이라하야已未年以來所謂日本人有志中에서는서로使用치안키를絶叫하엿다 그러나나는此等用語의意義 由來及兩民族에게及하는影響을論코자하지안는다 다만이말하면이라하는用語가잇기때문에果然日本人이朝鮮을다스리는所謂百年大計에惡果를生케함인지又는朝鮮民族의將來에도리허幸福이잇슬는지 그는나의論코자하는바이아니다

◇言語는 意思表示의一方式이다 그런데『구리요보』라는것은도모지意味를 成치못한表示方式으로日本語도아니요朝鮮語도아닌것이어서도文化人에게는通用되지못할것이다日本人對朝鮮人關係가아니고는들어볼수도업는말이아닌用語이다

◇그러나日本人對朝鮮人關係에 이러치아니한것이업다所謂朝鮮에對한日本爲政者의모든處事가『구리요보式』이 아닌것이업다『구리』라는『요보』라는朝鮮固有의民族性을『구리』라는大和式으로된집어씌우라함이다『구리』와『요보』가調和될수잇는用語인지그는讀者의判斷에맛겨두자(一요보)

江東明年度植桑
株數六十六萬餘本

平南江東郡廳勸業課에서는副業奬勵로郡守以下課員全部가十五日間各面을巡廻勸喩한結果明年度植桑本數가六十六萬二千二百八十本에達하엿다는데以後五年을經過하면江東郡現在蠶兒掃立枚數三千五百枚에倍加한七千枚를掃立하겟고收繭高는二千四百石에達하리라는데十一月十八日外지植桑地의鑿穴은完了하엿더라(江東)

永興翰洞鑛山

本籍을京城에둔金潤鴻氏는昨年秋에永興郡鎭坪面翰洞里(鶴谷鑛場里)에서鑛穴을發見하고卽時許可願을當局에提出한後許可를得하야黃海郡安岳郡의有力者元成煥氏와同業으로開拓採掘하던바今年九月頃에通穴이되야脈廣이五尺以上이요金石의品質도매우良好하다더라(永興)

臨河勞働親睦
十一月三十日創立

慶北安東郡臨河面에居住하는勞働者數十名의發起로勞働團體를組織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豫定과가티十一月三十日當地臨河靑年會館에서實地勞働者三百餘名이會集하야發起總會를開하든바周圍의事情에因하야即席에서創立總會로變更하고金世魯氏의簡單한開會辭가有한後臨時議長金琥秉氏司會下에여러가지討議가잇슨後宣言綱領規約制定委員으로金廷植金鍾植金錫魯三氏가被選되야次期臨時總會에通過하기로되고爲先入會金三十錢과月捐金二錢式으로決定하고執行委員二十五人을選擧한後未盡事項은執行委員會에一任하기로可決하엿다는데臨時總會와發會式은來二十三日臨河靑年會館에서開催한다더라(安東)

◇執行委員
白海得 趙道石 金石度 金石守 裴岩于 李石文 張述伊 申聖寬 裴周先 裴台云 劉逢伊 裴先伊 林漢千 沈尙文 金世魯 金廷植 金鍾植 金錫魯 金琥秉 金秉熙 金秉夏 金成大 金時赫 金秉文 金際濂

社會問題大講演

全南光陽靑年會에서는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幹部南大觀氏의光陽到着을機會로하야光陽勞農聯合會、中外、時代、本報光陽支局後援과勞順和氏司會로社會問題大講演會를十一月十日當地靑年會館에서開催하얏는데當日演士와演題는如左하다더라
無產階級은一致團結하라 南大觀君
經濟組織과人間生活의關係 辛命俊君(光陽)

遮湖內浦에
十字形大敎堂

咸南利原郡遮湖長老敎本禮拜堂은交通이不便하든바美國宣敎師三張元汲廉仁植金昌實金容洙外敎人諸氏의熱誠으로遮湖內浦에十字形의大敎堂을新築하고去月에獻堂式外지하엿다더라(利原)

●密陽討論盛況 十一月二十八日密陽驛前俱樂部主催로當地禮拜堂에서『人生의最大慾望이事業이냐快樂이냐』라는題로討論會를開하얏는데事業便으로는金斗明、鄭守泓君과快樂便으로는朴濟元君의熱烈한辯論이잇슨後聽衆의投票로勝利는快樂便으로도라갓다고(密陽)

●會頭는張氏當選 大邱商業會議所에서는지난評議員改選과會頭選擧에各方面으로人物이物色中이든바大邱銀行專務取締役張稷相氏가그會頭에當選이되얏다더라

●理髮貯金稧創立 黃海道瑞興郡新院에서는理髮同業人이十餘人이되나무엇에던지團一되지못함을遺憾히하야오던中十一月二十九日에는理髮同業人이會集하야親睦을主로하고理髮料金도一定하게하며또하서貯金을實行하기爲하야理髮貯金稧를組織하엿다는데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新院)
稧長林仲根 會計朴宗煥 監査金亨植 朴龍雲

客月末元山物價

十一月三十日元山客主組合調査에依한元山市場物價는如左하더라

糯米一斗上品四圓白米一斗上品三圓八十錢同中品三圓七十錢稗一斗上品二圓八十錢粟一斗上品二圓三十錢同中品二圓同下品一圓八十錢碎米一斗上品二圓九十錢薔麥一斗上品二圓七十錢大豆一斗上品二圓小豆一斗上品二圓六十錢同中品二圓四十錢小麥一斗上品一圓六十錢明太二十尾上品七十錢同中品五十錢同下品四十五錢生牛牡一頭中品六十圓同下品四十圓生牛牝一頭上品八十圓同中品五十圓同下品三十六圓豚在來種一頭上品十圓同中品七圓同下品五圓豚改良種一頭上品二十五圓同中品十四圓同下品九圓鷄在來種一羽上品八十錢同中品六十錢同下品四十錢鷄改良種一羽上品一圓同中品八十錢同下品五十錢鷄卵一個上品三錢同中品二錢五厘(元山)

寸鐵

◇

【義州】 鴨綠江上流에는발서 어름이얼엇다 고아! 허울벗은우리無産동무들은갈곳이어데인고 哥兵富人이나哀此煢獨은若今여 一般

【麗水】 郡內某公普校長은柔道를遊用하야十五歲兒童에의죽일번햇다지萬一그兒孩의父兄이發見을못햇던들生命은柔道競技의犧牲되고公醫는審檢者로化하고우를주출政策下에서잇지부지나아니되엿슬런지

【高原】 무엇보다도高原에서는日就月將으로業成하여가는것은술집과料理집이라나그反面에는靑年알콜中毒者가만하감이可惜

地方學界

濟源面民大會
學年을延長코저

全北錦山郡濟源面에서는十一月二十八日濟源公立普通學校에서面民大會를開催하고當局에陳情中인同校四年制를六年制로延長할事를具體的으로對策한結果當局에陳情하기로하고陳情委員代表로는鄭海允、韓寅澤、金勳卿三氏를選定하얏다더라(錦山)

召羅第一學院

全南麗水郡召羅面玄川里第一學院은經營以來敎難이多大하야經營上困難이不少하든바今年一學期부터敎員李善雨、金永斗兩氏를延聘하야校務에對한諸般事를委任한結果李金兩氏의熱心敎授로學生이七十四名에達하고近頃에는夜學까지敎授한다는데男女學生이四十餘名이라더라(麗水)

常設校演樂

黃海道信川郡山川面沙邑里私立常設學校主催와東亞本報兩安岳支局後援으로來十八十九日兩日間同校內에서音樂演奏會를開催하리라는데出演할樂士는安岳音樂家劉世華氏와同基督敎靑年會洋樂隊其外에도一流音樂家들이라하며入場料는男子는三十錢女子學生은二十錢이라더라(安岳)

府山勞働夜學

慶南蔚山邑玉峴面에잇는府山勞働夜學會에서는十一月二十日第一回修業式을擧行한後同月末日外지新學生募集에奔忙中이더니去一日부터다시開學한바一二學級生徒가三十餘名이라더라(蔚山)

荊谷勞學素劇

慶北善山郡龜尾面荊谷勞働夜學院에서는洞民會後援으로素人劇을興行하야捐助를募集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대로去一日부터二日外지兩日間에勞働會을意味한赤旗아래에서興行을다마추엇는바空前에大盛況으로收集된捐助金이七十八圓에達하엿다더라(龜尾)

南城勞働夜學

咸南永興郡綿坪面南城洞에在한有志靑年朱官述外四人의發起로今多期를利用하야無産靑年及勞働者의智識啓發을爲하야約二週日前부터該里朱官述氏家를비러勞働夜學을開하고甲乙兩部에分하야甲部(男子部)는張貞俊乙部(女子部)는車文益兩氏가各一部式擔任하야方今無報酬로敎授한다더라

複習所의索綯

全北南原郡山東面公立普通學校通學生으로組織된太平里複習所는出來로成績이良好하던바一般이貧寒한家庭子弟로父兄의게學資提供을喜托키難함을憂慮하야張力鉉氏의發論으로同複習所內에索綯料를設置하야下午十時外지複習을終了한後一時間의索綯를勵行하야此代金으로各自月謝金에充用한다더라(南原)

永興九灣勞學

永興郡億岐面九灣里에散在한無産靑年及勞働者들의覺醒으로『우리는무엇보다도團結이必要하다』는標語下에勞動團을組織하야오든바去十七日該團幹部會를開하고商議한結果今多期를利用하야夜學을開하기로意見이一致되야方今準備中이라는데同夜學은該里 [illegible] 君이無報酬로敎授하리라더라(永興)

立岩女子夜學

平北龍川郡楊下面立岩洞에서는月前부터女子基督靑年會主催로無産家女子와年齡上關係로學校에就學치못하는女子들을爲하야每年繼續事業으로女子夜學을設하고講師諸氏의熱心敎授한結果四十名生徒의成績이매우佳良하다는데職員은如左하다더라

◇職員
校長崔文寔 學監鄭濟國 講師白學信 桂禎鶴 金加恩

大利里夜學

江原道華川郡華川面大利里興風會에서는大正十一年十一月頃부터同이夜學會를組織하고每年冬期를利用하야多數의少年勞働者를敎養하야오던바今年에도十一月十五日부터同會員金炳模氏외同會主催와同會幹事全東郁氏의熱誠敎授로就學志願者가每日增加한다더라

鶴泉私普竣工

平南孟山郡鶴泉面에서는私立普通學校設立期成會를組織하고同面長白仁德外有志諸氏가熱誠努力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十一月外지工事費四千餘圓으로宏大한敎舍를新築竣工하얏는데開學期는來年一月이되리라더라(北倉)

朔州婦人夜學

平北朔州保護者會主催로去一日부터婦人夜學會를開催하얏는데就學生이五十餘名에達하얏다더라(朔州)

●柳草夜學盛況 義州郡光城面柳草洞은鴨綠江下流에介在한一寒島嶼로住民이二百餘戶오人口千餘名에達하는地方으로勞農靑年을啓發할만한機關이無하던바昨年부터當地天道敎靑年會에서發起하야該宗理院에夜學會를創設하야成績이頗히良好하얏는데今秋에또該靑年들의準備로客月十四日부터開學하얏는데諸氏의熱心敎授로每夜出席員이五十餘名에達한다고(義州)

松坡夜學新設

廣州郡中垈面松坡里中央靑年會에서는十一月二十二日委員會決議로委員鄭憲天氏家에夜學部를設置하고多數夜學生을募集하야去二十八日부터實施中이라는데講師尹普榮姜先成尹滿熙三氏가無料敎授한다더라(松坡)

有望한學生補助
鄕校財產中으로

江原道平昌郡에서는鄕校財產中에서郡內普通學校在學中成績이優良하고도生活困難으로就學치못하는者를調査하야以來四五年中一名에十圓식주어오던바今年에補助를바든學生은如左하다더라
平昌公普二學年柳藻 大和公普四學年金泰龍 同校四學年鄭永極 珍富公普三學年宋福龍(平昌)

公德靑年會講演

咸南洪原郡龍雲面公德里靑年會에서는同會의主催로十一月二十七日同里夜學校堂內에講演會를開催하고演士『宋影』氏가『움직이난世上』이라는演題로警官立會下에서大熱辯을吐하얏다더라(洪原)

郵便物拾得還付

十一月二十日에咸南自働車部四十號自働車는京城、城津行郵便物을紛失하야서困難中에잇든바同日咸南利原郡西面梨德里李鉉住氏가徐口末에서拾得하야利原郵便所에還付하얏다더라(利原)

◇慶州衛生機關

慶北慶州郡內施設된衛生機關을數字로示하면左와如하다더라
隔離病舍三 醫院五 醫生三四 産婆二 藥商七一 賣藥一 種痘認許顯五

▲慶北慶州郡今年度內行旅死亡者는男十八女一人合計十九人이라더라(慶州)

地方經濟

元山檢穀總數
十一月中

元山穀物檢査所의十一月中穀物檢査總數는玄米八千八百七十一叺白米二千二百八十叺大豆三萬四千百五十二叺이요同後物一千六百二十八俵의外에三十日의檢査數約一千五百叺를合하면計四萬九千餘叺인대此를前年同期에比較하면玄米만四千七百叺의增加이고白米一千五百叺와大豆一萬三千餘叺의減少인바其原因은出廻當時에는高價이든것이今日漸次下落하는故이다十一月十五日의大豆市勢는石에特等二十一圓八十錢一等二十圓八十錢二等十九圓三等十八圓七十錢四等十七圓인바十月十五日市勢는特等二十六圓八十錢一等二十五圓二等二十四圓三等二十二圓八十錢四等二十一圓等의高價이며尙且昨年十一月十五日의市勢二十一圓二等二十圓三等十九圓八十錢四等十八圓八十錢等으로高價이든것이요사이多少下落할것이라더라(元山)

客月末木浦物價

木浦幸町金澤商店調査에依하면當地十一月末現物價는左와如하다더라
上白米四十一圓三等玄米三十二圓八十錢籾百斤九圓三十錢白太一石十八圓五十錢赤豆一石二十五圓大麥一石九圓五十錢小麥一石十八圓五十錢明太一괘七十錢甘藿(二十手一斤)二圓五十錢鹽靑魚一級八十錢棉花一等一斤二十六錢白木一疋靈岩産三圓三十錢務安産一圓八十錢羅州産四圓二十錢(木浦)

南市玄米盛況
每日產出千餘石

龍川郡南市驛은別名新南市라稱하는바年年繁昌함을따러서今年度에市街建物도相當히建設되얏스며市場期成會를組織하야市場許可도곳되리라는데特히精米業이旺盛하야各勞働者의事業까지附與하며玄米附屬物이稻糠으로燃料에代用케하는等地方에莫大한利益을줄것이다其中有數한精米業者及其實力은如左하더라

商工株式會社 石油發動十馬力 百八十石 李用煜
營昌商會 同七馬力 百二十石 高永奎
五成商會 同三馬力 百五十石 白顯源
申命周商會 同三馬力 百五十石 申命周
占部商店 同三馬力 百五十石 占部虎次郎
洪洛疇 六馬力 二百石 洪洛疇
營昌商會支部 土磨十臺 五十石 高永奎
弁店 土磨十一臺 六十石 李昌心
申相俊 同九臺 五十石 申相俊
鄭奎炳 同十臺 五十石 鄭奎炳
趙信煥 同十臺 五十石 趙信煥
計 發動三十二馬力 土磨五十臺 一千二百十石(龍川)

客月仁川漁況

客月中仁川近海漁況은日船及朝鮮漁船共히例年同期보다意外天氣가溫暖하야昨年同月에比하면實로一千餘圓의增額을示하엿는데本月中因航度數及水揚高는左記와如하더라
日船九〇隻四、五七二圓
朝鮮船二一八隻四、八七六圓
釜山其他日本으로의委託品七、九三〇圓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Dec. 6th, 1925.

CHINA IN CONVULSION.

By A. W. Lochead.

V

Honan Thoroughly Red.

Honan has gone thoroughly red. Two schoolboys and a schoolgirl came from Shanghai not long ago. They are said to have received money from the Military Governor of Honan to bring about a strike in the Peking Syndicate mines at Chiao Tso. They lived in the Normal School at Weihwei, and in a few days they succeeded in calling a strike, in carrying on a rigid boycott, and in rousing mob violence at the mines. The Brigand General Cheng at Weihwei asked me to write immediately to the manager of the mines saying that he would settle the strike in a day or two. When I received a reply from the manager I saw the General's only purpose was to secure a bribe from the Syndicate. Events moved too rapidly for him. The British staff was removed to Peking three days after beginning of the strike. Strike pay has ceased, and the poor dupes of the students are starving. They are clamouring now to be allowed to go to work.

All student agitators have free passes on the Government railways. Recently a band of about 100 schoolboys in black clothes, came off the Peihan train and made the Normal School their headquarters. They inspected all the shops in the town and seized all the British and Japanese goods they found, destroyed the cheaper stuff, and kept the more valuable for their own use. The General next day proceeded to fine the merchants.

At last threats, raids, and personal violence expelled us missionaries to Kikungshan, into the domain of Hsiao Yso-nan where we are safe. Here hundreds of missionaries and their families are resting during the hot months, and awaiting developments.

英文欄
中國動亂(完) 롯헤드

北米에大旋風

오만여명의 살곳이 일시에다 날러가고말엇다

◇死傷者도二十五名

북아메리카(北米洲)의 동해안에는 큰『회호리』바람이 부러서 미국『버지니아』주에서는 오만명 주민의 살곳을 일케 되엿더라 (나우엔사일발뎐)

미시십피州에도― 북미합중국『미시십피』주『야쓰』군에는 이백오십간(間)의 큰『회호리』바람이 부러서 문허진 가옥이 사십호이오 사상자는 이십오명에 달하얏더라 (미시십피주사일발뎐)

滿洲中國官憲의 『韓僑取締辦法』

만주에잇는동포에대하야 중국관헌의취톄는일익심

엄마전에 봉텬성경무처에서는 각현지사(各縣知事)에게 한인(韓人)을 엄중히 취톄하야 치안을 문란케하는 후환이 업도록 하라는 명령을 발하엿는데 근일에와서 집안현(輯安縣)지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조선사람중에서 조선독립을 목뎍하야 무긔(武器)를 휴대하고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는등사는 현내치안을 소란케할 념려가잇다하야 한교취톄판법(韓僑取締辦法)으로 엄중히 취톄하라고 명령을 발하얏다더라

成川青年의 書堂改革運動

자데교육이 필요한것은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당국에서도 이에대하야 삼면일교주의가 또변하야 전차로일면일교를 실행한다는 희소식이 들리엇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당국의 취하는 교육방침을 하나도 조선인(朝鮮人)을위하야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로하야금 일본에동화케하는 교육이라고볼수밧게업다 그럼으로 이문뎨를볼때에 도다하면 이천만동족에 최후의길이 멀지아니하겟다하야 성천(成川)청년중에서 매우 이문데 해결에대하야 연구하든 사람이 만헛는데 근일 유식청년중에는 먼저 서당규측(書堂規則)부터 개뎡하여야 되겟다고 그에대한 폐해를 묘사하는중이라는데 성천일군에만 구월말일 현재의서당이 이백이넘으며 아동이 삼천명을 산하는모양인데 이들의 밤낮배호는것은 텬디현황(天地玄黃)뿐으로 도로혀 그들에게 해를줄뿐이다 그럼으로 일부에서 서당전폐론(書堂全廢論)을주창하야 감독관텽인군에 교섭한즉 당국자의말은 서당을업시하려도 서당규측이 그것을 폐할수업다고 하는 **모양인데** 만일에이규측을그냥둔다면 전조선을통하야 서당수로만 사만(四萬)이요 아동이 사십만(四十萬)이 넘는그들로하야금 멸망의길로 인도하는 범죄를 그저둔다하면은 조선통치상의 엄매바침이 아니니 어떠케 뎡할여유도 잇슬것이라하야 이에대하야 여러가지로 토사한후 전국에격문을보내여 **일대운동**을행할계획이라는데 성천군(成川郡)가튼곳은금년군수의명령으로일제폐령를하라하얏스나 아모강제력이업는것이라 도로혀 더우증가를표시하는형편인즉 이를 엇지할수업는것인데 이에대하야 **군당국자**는말하되 이문뎨에대하야는 군수 회의때에 아직방침을 뎡하지안은모양입니다 우리도되도록 그런운동이되엿스면 인민을위하야 행복이될줄밋슴니다하더라(성천)

贅肉을 주리라고애쓰는

米國蹴球選手後補

미국학생들의 가장힘쓰는 운동은 겨을씨슨의 축구인데 축구『고취』(指導者)중에는대학총장보다도 봉급이 만흔이가 적지안타하니 따라서선수의 선택도 엄중하며 그련습은더욱 맹렬하다는바 사진은 미국『조지아』공과대학의축구후보선수가 군살(贅肉)을 줄리기위하야한돈(噸)이나되는『로라』를 끌고올려가면서 써으는 광경이다

困境에빠진 載寧夜學院

엄동은되엿스나 석탄이업서고통

황해도재령읍(黃海道載寧邑)에는 수년전부터 읍내모모유지의 노력으로 재령야학원을 설립하고 사회유지의 동정을어더 수년간계속하여나오는중 설립자들은 풍우를 무릅쓰고 자나깨나동서로 활동하야 지어금일하엿는데 백여의무산아동을 모아노코 그날그날을지내가나날이갈수록 **사방으로** 아동은모여들되 나날이쏫기는경비로 말미암아 백방으로 경비엇기에골몰하나 냉정한이사회에서 어데가일준뇌 출권을어드랴 완전한학교에서는 낫에도밤셔 볼을퓌우는데 치워오며 설비가 완전한학교에 석탄한개살돈이업서 장치에 나갈길이 망연하다더라

設立者金元浩氏談

설립자 김원호씨는 차거간긔자에게대하야 눈물을 먹음고서서히말을 쇠내는바 참무르시니말승이외다만은 본시 읍내모모유지가 일개월에 얼마식부담금을 내여 근근히 유지하여나왓승니다 그러나지금은 그도잘드러오지안코 학생은 날이갈사록증가하는데 날은 치워오고배워나무 결심하에 오기는 이가리만이오나 볼쌔마다 쇠러오르는심사는 엇더라말할길어업승니다하더라

극빈자의 자데일원아니니라 태반이 남의고공사리들하는 아동인바 그래도 배워보겟다는 눈하나도업는데오는아동은(재령)

晋州、鍾路― 兩署員聯合活動

내용은절대비밀이나 눈치를보면중대한듯

시내종로 경찰서 고등계에서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와련락하야 사회주의자를 검거한사건이잇슨지 며칠못되는 오날오후에 다시동서사법계에는 경상남도 진주경찰서(晉州警察署)로부터 일인경부보 한명과형사한명이 급거도착하야평림(平林)형사부장이하 다수한형사와장시간의구수밀의를행한후시내모방면을향하야분대활동을시작하엿는바그내용에대하야는절대비밀에부처자세히알수업스나그들의행동을엿보아절단코소홀한사건이아니요 중대한 무슨사건이 확실히잇슴을 짐작할수잇는데 또한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진주청내의 모부호를엇던자가 속여가지고 십수만원의 금을 횡령도주하야 경성에잠입한 형적이잇서 활동을시작한것이라는 일설과 일변시국을표방한강도가 진주모부호를 협박하고 대금을 탈취도주한사실로 활동을하는것이란 일설이잇서 그어느것이 확실한가는 아즉알수업스되 하여간사건이 중대한 것은 의심할수업는사실이더라

放火한後窃盜

피해자는주인 범인은고용인

사일오후다섯시삼십분경에대판부동성구복견뎡(大阪府東成區腹見町)염료상(染料商)오야구길(奥野久吉)의집에직공으로잇는 김암옥(金岩玉)(二二)은 그동무김재언(金在彦)(二二)과공모한후 그주인집에 방화하야대혼잡을이룬틈을타서 현금삼천원과 기타증권약일만원을절취하야가지고 도주하다가학정경찰서(鶴町署)원에게 추격데포되엇다더라(대판뎐보)

注意

不良少女와 浮浪少年

그페해는실로크다

요사히 경성시내에는 부랑소년(浮浪少年)이 만히도라다니며이미그릇된 부랑소년을 리용하야 량가의 나어린소녀들을 꾀여내여 그맑고아름다운 정조(情操)를 쌔아슴은 물론심지어일생을 타락의구렁에서 지내도록 몸까지 망추어주는자가 잇서 각경찰당국은 최근에이르러서야 그눈치를채이고 이와가튼 악소년의 검거에 분주중이라는데 이제시내관철동(貫鐵洞)일백팔십이번디 김봉화(金鳳化)(二二)라는자도 수하뎡(水下町)사는원모(元某)의어엽쁜딸 영자(英子)(一四)를얼마전부터 감언리설로꾀여내든중지난사일에이르러는조선극장(朝鮮劇場)을구경시킨후물론중국료리까지사주겟다고유인하여내인후 일본구경을 시키느니 어쩌느니하야 아즉 철업는영자로하여곰 홍박만하게한다음 조선극장 근처어떤 중국료리뎜으로 불고드러가서 금수와가튼 행동을하고자하다가 마츰종로서원에게 발견되여 방금동서에 륙치를당하고 잇다는바 이와가튼일은 결코 이것뿐만이 아니요 시내도처에 아지못하게 만히잇는것으로 금년녀름에 어름가가마다 십사오세의 피기시작하는 어린소녀들이잇서 손님아페서 아양을 부리든것들도 대개는 전긔와가티 유혹을바더그리된것들이라더라

市內染病減熄

장질부사만약간잇다

금년여름이래 시내에전념병(傳染病)은 극히맹렬하야지더니첫겨울을당하며부터그형세가컴컴줄어저서 현재부내환자수는 일백칠십륙명밧게아니되나장질부사(腸窒扶斯)는 아즉도 환자가속출한다하는데 본년일월이래 발생수를보면 아래와갓다

病名	現在數	一月累計
腸窒扶斯	一三三	九二一
赤痢	一一	二二四
씨라집스	三	四九
猩紅熱	二八	一七五
지프테리	一	四七
發疹지부스	○	六二
其外		
合計	一七六	一四八五

이상수지를보면 경성시내에전념병이 얼마나 만흔것을알수잇스며 대개반이 발생되는관내가 본뎡서(本町署)로 일월이래 오백삼십삼인이오 그다음이 동대문서의 이백사십구인이며 삼위가 룡산서(龍山署)로 이백사십인이라는데 아즉도 순화원(順化院)에수용된환자가륙칠십명이나된다더라

大阪에又復强盜

두명을칼로찔느고다러나

사일새벽두시경에 대판북구중긔뎡상일뎡목(大阪北區中崎町上一丁目)대구보헌남(大久保憲男)의집에는 강도가침입하야 잠이깁히 드럿든 전긔헌남을 생명이위독하도록 중상케하고 그후 실모『마쓰』(二五)를 또부상케한 후 전응을너머 도주하엿다는데 그자는 니긔(尼崎)출생의 통구륙태랑(樋口睦太郎)(二三)이란자 이라하며 그날은 별로피해는업섯다더라(대판뎐보)

가양식을 삼는외에 금품을훔쳐가지고 유곽에자조 드나든데다는데 이사건의 수사주임인 지구(猪之口)경부는 말하기를 보통상식은부족이오 범죄에대도상당한지식을가진자인데 일종의 변태뎍(變態的)의 성욕소유자라고말하더라(소창)

列車에치여 母子死傷

아덜을살리다가 어머니가죽엇다

지난삼일오전열시이십분에 밀양역(密陽驛)에서남으로향하든 호남련행특별급행렬차가 밀양역에서약일마장되는남포리(南浦里)를통과할 때에마츰선로연변에잇는 곽병일(郭秉一)(三一)의아들인재(仁在)(五)가선로우에서 놀고잇섯든바 그의모친김또순(金乙順)(三四)은 곳선로에 뛰여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선로밧그로 안어던진후에 자긔도피하려하엿스나 때는이미 느저 김또순은렬차에치여 갈비가 부서저 현장에서즉사하엿스며 어린아들은 이마에경상을당하엿다더라(밀양)

小作人同情하는 横山農場

충남서천군서천면삼산리(忠南舒川郡舒川面三山里)에잇는 일본사람의 경영하는 횡산농장에서 전무주임(專務主任) 유마광언(有馬光彦)이라하는일본사람은 원래성질이 순량할뿐아니라 되도록 조선사람에게 동정심이 잇더니작년한해(昨年旱害)를입어 곤갈이자심하든 사람에게금년 사월경에 여러섬의백미를 내여서 다만 하로라도먹고살라고 평균매호에 백미일두식을 분배한일이 비일비재하더니금년하긔에는 자긔작인(作人)들이 못슬병에고통함을 측은이생각하야 오륙인의환자를 군산으로 운반하야 자긔가비용일체를 담당하고 수개월간을 완전한회생자가되도록 치료를 마친후에 각각집으로 돌려보냇다하며 금일에와서는 농장도 조를수입할시긔를당함애 작년한해와 금년수해를 예산하야 도조를수입한다더라(서천)

少女殺害犯은 변태덕성욕자

긔보=일본소창시판궤뎡(小倉市板櫃町)추원조태랑(萩原助太郎)의딸정자(靜子)(一二)를 참살한고교마태랑(高橋馬太郎)은지난일일에사도검사(寺島檢事)에게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엿다는데 마태랑은 원래소창시부근인축전중원(筑前中原)에잇는 호농가(豪農家)의둘재아들로출생하야

청년시에는방탕하게지나다가 대정십사년부터 하관(下關)과그외여러곳에서순사로잇슨후 조선에 건너와 데신국(遞信局)서긔로근무하다가작년에 고향으로 도라갓스나 그형웅길(熊吉)의안해는동거하기를써림으로 마태랑은 자긔안해와함의 중원해호원(中原偕好園)뒤에움집을짓고잇서

하로하로를지나든바지난팔월경에 이르러 그안해에게 리혼을당한후로는 부근에잇는 밧헤나와 무혹은감자를 훔처다

帆船顚覆 船員三名慘死

시톄는발견

의주군송장면금광동 정상민(義州郡松長面金光洞鄭尙民)(三三)은 자긔배(船)에 무와배채를싯고 동군위화면상단동(同郡威化面上端洞)에 거주하는 김득룡(金得龍)(二四)과김봉하(金鳳河)(二六)두선부(船夫)를다리고 지난달칠일에 동군주내면서호동 선부백석환(同郡州內面西湖洞船夫白錫煥)의배와 한가지로출범하얏다가 지난달열이튼날 진남포(鎭南浦)에서 회항하야 도라오는데 지난달이십일일 오후두시경에 평남강서군 증산면연안(平南江西郡甑山面沿岸)으로부터약일리되는 여울에서폭풍을 맛나 전긔정상민의배는 전복되야 승조원삼명도 행위불명이 되엿는데 가티가든 백석환은그후생각한결과시톄를발견하고도라와그뜻을말하엿다더라(의주)

竹山市에米賊

경긔도안성군이죽면죽산 시(京畿道安城郡二竹面竹山市)의 미곡무역상(米穀貿易商)하는 리강헌(李康憲)의집에서는지난이십삼일밤에 현미(玄米)두가마니를 잃어바렷다는데 그자세한말을들은즉 전긔리강헌은 자긔집에서만든 삼능현미를 안성으로 실리는동시에 우하차 영업하는 동리송춘선(同里宋春先)의차에 실은차를 전긔리강헌의 곡간압마당에 두엇다가 이십삼일밤에 느시인지 낫을가진 절도가 집바를는코 현미두가마를가져가고그 낫은 겁결에 현장에다두고간것을발견하얏다더라(죽산)

火災로 父女慘死

가족을구하다가 자긔까지죽엇다

평북귀성군귀성면하단동안학구(平北龜城郡龜城面下端洞安鶴九)(四九)와그의 이녀두사람은지난달이십오일오전세시경에 무참하게도 불에타서 죽엇다는데그 자세한 내용을드른즉 그사람은본래잡화상(雜貨商)을하는 사람으로 그전날 읍내시장에 가서 종일물건을팔고 집에돌아와서 곤히잠을자든중 새벽에갑작이 불이집을둘너싸며 화광이충텬함으로 의복도 입지못하고 마당에 뛰여나가본즉 집안식구는아즉도 잠을깨여지못한듯하얏슴으로 다시 집안으로뛰어들어가 집안식구를 깨여가지고 나오다가 장녀(一七)는차녀(一一)를안고 나가다가 불행이불속에 떠러트리고 자리에서 즉사하얏스며 안씨도 그이튼날아츰에죽엇다는데그광경이 매우처참하얏스며 실화의원인은 아직미상하고 현금도백여원을 소실하야손해도 수백원에달한다더라(귀성)

精神病者日人

夫婦窃盜事件으로

주민들이불안하다

충청남도서천읍내(忠南舒川邑內)에거주하는 일본인하야(?)라는자는 정신병자인것을빙자하고 시내각상뎜으로 도라다니면서상품을절취하는까닭으로 일반상인들은 며칠간을 눈기지안는중이라는데 이것을당한경찰서에서는 고발을하면 경찰서에서는 오즉 설유를하여서 방석할뿐이며 더욱이 할러가든등 하야 여전히 각처로도라다니며 절도를 감행할뿐더러 요지음와서는 그안해도공모가 되여서 민심을불안케한다더라

民怨이만흔 東拓會社小作料

소작인의고혈을착취하는동척의악한수단

高原東拓小作人의今後運命

함남고원군(高原郡)에잇는 동척소작인(東拓小作人)은긔보한바와가티 소작료를 칠할이상(七割以上)으로폭증(暴徵)을 하는까닭으로 일년동안 피땀을흘려가며지은 농작물을 악독한동척손아귀에넘겨주게되고 엄동설한에 눈바람이 날림에 먹을것과 입을것이 업서 방황하게되는사람이 수삼십명이나 넘어동척에 대한 비난이 극도에 달한이때 소작료증수(小作料增收)에또두량(斗量)을 부정하게하는데그자들에 구실은 농작물에 결실이 부족하다하야 말우에 삼지(三指)식이나 더붓처 폭증하는고로 소작인들은 그혹독한수단에 시달리게됨에 그의운명은 각일각으로 박절하야 일반소작인의 괴로운 생명은 장차엇더케될지 모르리라더라(고원)

十四歲女溺死

빨래방망이를건지다가

경북청송군 청송면월막동 이백륙십삼번디(慶北靑松郡靑松面月幕洞)윤성암(尹聖岩)의처 권분이(權粉伊)(一四)는지난이십륙일 오전십일시경에 청송읍압 용지웃 깁흔물에 빠저 무참히도 죽엇는데 이제그자세한 사실을 소개하건대 전긔권분이는 동군진보면 출생으로 어려서그모친을여의고 병어리인 그부친의호라비의손에 길녀오든바 대정십이년 십이월에권과 윤성암의집에민며나리가되여 피차 장성하면결혼하야 장래의안락을 꿈꾸고오든바 지난이십륙일 아츰에 권분이는 압내물에빨래하려 갓다가 빨래방망이가 물에떠나려감으로 그것을 건지려고 물에 달녀들다가 깁흔물결에잡혀 그와가티 참혹하게빠저 죽엇다더라(청송)

無理한貸金業者

구원십원바든것을 륙십원을바덧다고

평북선천군선천면천남동(平北宣川郡宣川面川南洞)사는 고리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 리모(李某)란자는 남의토디의 저당을긔화로 구원십전바든리자(利子)를 륙십원이나 더바덧다하야 한층더 말썽이만케 되얏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드른즉 곽산(郭山)사는김모(金某)가전긔리모에게

載寧에도牛疫

이틀밤에두마리가죽어

황해도재령군하류면가려리 오두환오교협(黃海道載寧郡下柳面佳麗里吳斗煥吳敎協)두집에서는 지나간이십칠 팔일량일간에 소가돌연히 죽엇슴으로재령경찰서상야(上野)서장과동서식뎐(稻田)순사와 산본수의(山本獸醫)가현장에출장하야검사한결과 긔저병(氣疽病)으로죽엇다는것이 판명되야 산에매장하엿다는데 요사이에는 소병으로만히소가 죽는다하야 일반농민들은 소에게만흔주의를 한다고한다더라(신원)

看護員長 『미슬년』 女史의美行

부인과어린이들을위해 극빈자는무료치료하며

현재해주구세병원(海州救世病院)에간호원장으로잇는『미슬년』녀사는삼년전에북미주(北米洲)로부터조선에건너와 곳해주구세병원에 간호원장으로 잇서 날마다답지하는 환자를 친절한방법으로 병을고치려도 료하는 한편으로 극빈자(赤貧者)에게 고칠수업는 치료와 식량까지 공급한다는데 녀사는 특히 조선어린이를위하야 영아부(嬰兒部)를설치하고 일주일에 한번식 가뎡부인을모아노코 어린아이기르는상식과 부인위생에대한 강습을 하는중이라는데 금년이래에도동명뎡(東明町)일백사십구번디리경선(李京先)의안해가 임긔가다되야해산은하엿스나 생활이 곤궁한탓으로 국한그릇떠뜻이 먹지못하고 산후증으로인하야 그대로자리에누어 고민하는것을본 녀사는즉시 자긔의병원으로 데려다가일개월간이나 무료치료를하엿다하며또다시북행뎡(北幸町)에사는송동환(宋東煥)의안해도 역시 살림이빈한한처디에 해산긔가됨을알고 곳병원으로 데려다 일개월반 동안이나 식량을공급하며 해산을식히고 그밧게도 먼곳에서 병고치러왓든 적빈자에게는 차비까지준다하며 녀사는특히 어린이를위하야 전력을 다한다는데 그중에도 빈한한집 어린아이에게는 우유까지공급하며전긔 리경선의어린딸 금선칠(今仙七)을데려다의복까지해입히고 공부식히는지가 벌서일년이넘엇는데 일반은 그의아름다운사업에대하야 감사함을 마지안는다더라(해주)

釜山鎭의 苦學生쌩

열사오세의학생들이 밤이늣도록웨친다

요사히 밤이라면 바로겨울날이다 모진바람찬이슬을 무릅쓰고 밤이이슥하야 만뢰는고요히 잠들엇슬때처량한나 어린목소래로 『고학생쌩이요』하고 웨치는소래 자조들닌다 그는나이불과열사오세의 나어린 부산진(釜山鎭)보통학교학생들이다 어깨다가커다란 쌩관을메고 찬바람과모진치위에 못니겨서 양손을입에대여가며 헷여나 한개라도 더팔가하야 이골목저골목도라다니며웨치는 그나마 이모진바람을빗어 그의 멋개파는것이라야 원가(元價)를제하면 몇푼이되겟느냐 이것으로 학비를지불하고 나면 겨우 이삼십전에 지나지못하나 그러나 이것이라도업스면 학비라고는 못어들모양임으로 다른 도리업서 조치못한 어린심사를 억재하고라도 쌩관을메고 나온다한다 그러면이쌩만드는 곳은 어데인가 무르면 부산진에고학생상조회(苦學生相助會)라는모임이잇서서 그곳에서 실비로데공(實費提供)한다더라

黃金萬能의 現制度가나흔罪惡

돈으로딸을밧구는아비의만행

돈밧게는 모르는아비와딸

女性의將來는果然如何?

돈! 이세상은참으로 돈밧게몰으는세상이다 돈으로 말미아마 부자형데의 륜긔도 어긔어지며 부부간에 정까지도 돈이어업서지게하는것이 근래 자본제도의 종종나타나는사회상(社會相)의 한아이다 수천년래로 례의동방이란칭호를듯든 조선에서 밧서 이러한사실이 끈임업시 쇠리를맛불고 일어나는것을볼때에 누구가불평을부르짓지아니하랴 일전에경북안동군풍남면(慶北安東郡豐南面)에사는 황쾌수(黃快秀)라는사람은자긔의장인되는동군일직면(同郡一直面)에잇는김만익(金萬益)이란자를걸어 고소를 제긔하엿다한다 장인을 어그와가티 고소를하는그의리면에는 무슨흑운이 잠재하엿는가? 사실인즉 역시 돈으로말미아마 나타나는 현상의하나이다 전긔 김만익은 김영희(金永姬)라는 딸한아를두어서 돈에만눈뜬그자는 큰보물이나 가진듯이 돈만준다면 이사람저사람에게 돈을밧고시집을보내기를다섯번이나하엿는데 그고소한 원인은지금으로부터사년전에 (四次)재로 전긔황쾌수에게 현금륙십원을밧고 시집을보낸바 황씨는가세가본시 극빈한터임으로 처가사리도 김만익의집에 잇섯스나 점점생계가막연함으로 하는수업시 살길을차저 영주군안뎡면(榮州郡安定面)김창곤(金昌坤)의집에부처 아팟던사리를 하여오든중 얼마전에 그계집의아비가 또한백방으로 꾀여서다른곳으로 돈을밧고 시집을 보내고 황씨집으로는 보내지안음으로 황씨는 그사실을 알고 장인되는김만익의 행동을분개하며김영희의무정함을 패심히녀여 그사유로 전긔 안동경찰서풍남주재소(安東警察署豐南駐在所)에고소를 제긔하엿는데 이세상에는 이러한 비극이 과연얼마나 잠재하엿는가?(풍산)

井邑驛前의 매갈이군大淸潔

저울추를위조사용자 오륙명검거하야 이후로

조선은농국(農國)인동시에 남선이중심디대임으로 미곡상의 매가리가제일만흔곳은호남선(湖南線)연로(沿路)이매따라서 조포(粗包)를중상(中商)하는자들이 만흔중에 엇던자는저울추를위조해가지고 피땀을흘려가며립립개신고(粒粒皆辛苦)로 지은농민의 벼를속여쌔앗는자가 업지아니하야 결국은법망에걸린자도잇고엇던때는 수백석을 방매하는속에 멋섬의 손해를 당하는 일이 적지안타는데

금년가을에는당디광주디방법원정읍지텽검사국의비밀조사명령으로 정읍 역전에서매가리하는일인전중(田中)의집에서 일본인의환산(丸山)과 및조선인최정선(崔正善)은남길(殷楠吉)등의 저울추를가복(加卜)하야 사용하든무리오륙명을동군경찰서원의손으로검거하야

구류한지 수월이지난금일에는모도예심에부처고생하는 중인데 그들의운명은죄의유무와경중에달렷거니와동역전매가리 일동은 매청결을밧은듯이전보다 더욱주의하는고로벼를방매하는농민들은 저울의 공평함을 깃버한다더라(정읍)

安州强盜犯

윤찬은징역삼년

지금으로부터 수삭전에 안주군 대리면과 신안주면오응백(吳應伯)등집에드러가서 물품을강도하고 경관에게잡혀 취됴를밧든 동군대리면미서리(尾西里)윤찬(尹燦)(二四)은지난이십오일안주재판소에서 징역삼년의 판결언도를밧앗다더라(안주)

蔚山에火災

손해가불소

울산군울산면 교동(蔚山郡蔚山面校洞) 강호봉(姜昊鳳)의집에서는 지난이일새벽세시경에 불이나서 벼(稻) 십여석과 보리콩등과 집한간을 소실하엿다는데 그불난원인은 그전날저녁에 거름간에 처다노은 재(灰)에불이당겨서 잠자는동안에 그와가티 적지아니한 손해를 당한것이라더라

◇長連火災

지난이십오일 오후열한시반경에 장련면서부리정긔후(西部里鄭基厚)집에서불이나서 일시소동을 이르켯는데 다행이 근방청년들과 별소수의 진력으로 주방(廚房)반노만탓스며 물품에손해는 업간밧고원인은 방금됴사중 이라더라(장련)

癩病者가餓死

경북청송군 청송면 월막동윤재준(慶北靑松郡靑松面月幕洞尹在俊)의소유인(큰길나드리)의비인집에서 지난이십오일 오후륙시경에정도무(鄭道懋)(四五)라는문둥병자가 죽어시데는 청송경찰서에서 검시하야 즉시청송면사무소로 인도 하얏다더라

各地의氣候

竹山에初雪

경긔도안성군죽산디방(京畿道安城郡竹山地方)에는지난달이십팔일부터 련해쌀쌀한 삭풍(朔風)이불기시작하더니지난일일오전구시부터 계속하엿는데 적설의분량은약네치에달한다하며아즉도 음한긔후(陰寒氣候)가쾌청(快晴)되지아니하엿다더라(죽산)

井邑에初雪

지난달삼십일 하오열두시부터 전북정읍(全北井邑)에 번개불이 번득이며 산악을 진동하며 큰콩낫만한우박이 두시간이나쏘다지엇고 그이튼날 금월일일아츰에도 간간이오다가하오여섯시부터 흰눈만나려와서반자나평디에싸히엿는데 금년의처음눈이라더라

鎭興에氷雪

함남영흥군 진흥(咸南永興郡鎭興)에는 십일월삼십일일까지아모리춥지 안턴터에 갑자기 십이월일일새벽부터 눈이오기시작하야약다섯치가량되게눈이나려 억기진평(億岐鎭坪) 부근은은세계(銀世界)를 이루엇고작년에 비하면 좀일즉왓스며이가티눈이옴을 따라봄날(春)가티 뜻뜻하던일긔가별안간

江景에初雪

지난일일부터 치워지며 비와처운바람이 불더니 그날밤부터 눈이나리기 시작하야 그이튼날까지 계속하엿는데 매우만히왓스며강경에서는첫눈이엇더라(강경)

新浦에初雪

함경남도 신포(咸南新浦)에서는지난삼일 오후칠시로부터 동십일시까지 눈이 삼촌이상이나되고긔후는극한이되엿다더라

鏡城에初雪

경성(鏡城)에는십일월삼십일밤부터 시작하야 눈이나렷는데 사오촌이나 싸혓고아즉도오는중이며 작년에 비하면 한달남즛이늦다고 하더라

南原에大雪

전북남원디방(全北南原地方)에는지난일일부터 오기시작한 눈이이미수척의적설을일우어교통이두절되고 곳도 만으며 삼일까지 연속강설중이라더라

휘파람

▲황해도황주군하면이 전세월에는 디방의 세력이쌀내슴가탓다 ▲그래서인민이관리를 츠어다보앗고 부러워하든 사실은 다른디방보다도더하지 아니하엿는지 ▲엇재든지 면이 생긴이후로 황주군의엇던 면장은 십년이라도 장구한세월을 계속근무하엿다 ▲관리를숭배하는데서 나아온결성이 아닌지 단언키어려우나 인생의십년동안이 그다지짜른긔간은 아니야 ▲그래서 일부의반대도 불고하고 면서긔두사람발긔로 면장긔념비를 세웟다나 ▲한달도못되긔념비에 요사이 황금칠을더하야 면장의덕을 청송하엿다▲ 그러나 순황금칠가탓스면 영세불망이 될런인데 자세히드려다보면 동칠이라고

假王 【二五】

白眼子譯

내친왕이 이전에는 로국왕을사랑한일이 업다가 대관식한뒤에비로소 련애를 시작하엿다 하니내친왕은 지금 라도빈개인을사랑하게된것이지 로국왕을 사랑하는것이 아니다 그래서나는허리를엇안고 다시말을 무르며

『그러면전에는 나를사랑하지아느섯다는 말승이오』 내친왕은방그래우스며

『아마면하의 면류관에 반하엿나보아요 대관식째부터 사랑하는마음이 생기엇서요』

『그전에는 도모지 업섯다는말승이오』

내친왕은 가만히 우스며

『면하에서는 그러타는대답을드르시랴고 엿심으로 무르심니다 그려』

『그러면 그러타는 말이오』

『비』하는 소리가 돌돌굴러가는 말이엿는데 말씀이어서

『조심하세요 그이는지금 독이 단단히 낫슬터이니』

『그이라니 공작말이오』하고 나는나의마음을 억제하고 내친왕의손을 탁노흔뒤에 조곰물러서서 밧글내여다보앗더니 나무가지는 바람에 흔들렷다

『내가 이나라왕이 아니더면』 하는나의말이 끗나기전에 내친왕은 왈칵달려드러 내손에자기 손을노코

『왕이 아니라도……』하고 『쌔말님이 되섯니다』

『감옥에가친 죄수라도 나의입금을다지라할써에 내친왕은 나의입을 막으며

『그런말슴은 고만두셔요 련애가업서 홍하려는 사람이야 불행한사람 이겟지요 련애를모르는사람은 세상을 허송하는 사람이겟지요 나는 불행하지도 안코 세상을허송도 아니합니다 대관식후로 말승이야요』하고얼굴을푹숙이엇다

한참동안을 아모런말도업서서서 나의팔이 내친왕의 허리만셔어안고잇슬에 다『내가아니오』은 하는말을 쇠내라할때에 밧게서 신소리가 뚝려뚝려나더니 창밧게엇던사람이와서 우뚝 섯으도 내친왕은 깜작놀라 내뒤로숨는데 그사람은뭇 사머좌이엇섯다 나를보고 허리를굽히며 례를하더니 눈쌀을찌푸리고

『죽음에라 잘못되엇슴니다마는 대승정께옵서 면하께알현하오라고 반시간이나 기다리엇승니다』하는데 사머좌의얼골에는 경고하는눈치가보히엇다 얼마나 오래동안 우리의이야기를 엿들엇는지 알수가업스나 그러나나는그째에 결혼을 하자는말까지 나아오라하야 지극히 긴장한째이엇다

『그래서는아니되지』하고밧그로나아가라하든째 내친왕은 련애하다가 시신에게발각이 되엇것마는 조곰도붓그러운 긔색이 아니보히고 손을내어밀어 사머좌와 악수를한뒤에야 큰방으로 가려나아갓다

만조백관이 동부인하고 무도회에참례하엿다가 모다 헤여지는데 가만히눈치를살펴본즉 사머좌는 나와내친왕이 서로련애한다는소식을 전파하는 모양이엿다 나는내친왕을 부축하야대궐마당에까지 나려가서 마차에태워주는데 군중은 헤여지지아니하고섯다가 만세를 놉히불럿다 그째에 나는로국왕이 아니라하엿더면 나의말을밋기는커녕 나다려도로혀 실성한사람이라 고하게 형편이되고마럿다 사머좌는발서 계교를부려 나를팔우헤 태워가지고 온장안으로 다니며 내친왕과 약혼한소식을듯고 길거리로모혀 나아와 만세부르는 군중을맛나게되얏다

그럭저럭 나는오전에게시나 잠을자게되얏는데 사머좌홀도 나의업혜안저고 나는정신업시 화로불을바라보고 잇섯다 머좌는담배만 뻑뻑빨고안젓다가 상우헤 월계화 한송이가 노혀잇는것을 보고 손을내여미러 집으라하얏스나 내가얼른손으로 쏫흘덥니

『이쏫은내것이오 내친왕이줄때에『키스』까지한것이오 이쏫은 뚝내것이고 머좌의것도 아니오 로국왕의것도 아니오』

『로국왕이 오늘저녁에는가엽게되겟소』하고는 고개를쏘덕이며

『마음에무슨 생각이계십닛가 그러나 녀자를속여서는 아니되겟지오 데모를보서야지요』

『데모를보게하여주셧소』

『그러치만 조고마한녀자를속이여서는 아니되지오』

『그럿틈려는고만두시오 사머좌는요사이 마음이편으니 유하여지셧소 로국왕은 지금전당에서 감옥사리만하고 우리는이머궐에서 잘지내여도 량심에걸리지아느시오』

『그럴가망이잇슴니까』

『오늘저녁군중을 보지아느섯소 또일주일만 더잇스면뼈청하온 엇지하야우리가 꿋나와내친왕이 결혼을 아니하느냐고 야단일할것이오』

『비그럿슴니다 그러나결혼을하신다면 나와본저사와나를 죽이어야되지요』

사머좌와 싸울것잇소한시안스로이나리군대룰이르켜사머좌 포박하라할수도잇소모도가머좌의거짓말이아니오』

『사실은그럿슴니다』

『나는 내친왕과결혼하고 로국과공작은 엇지될지 알것잇소』

『……러나 나는 전당으로가서 왕을 다려다내친왕에게주겟소……』 주먹으로월계화를부서바리려